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08월 28일)

참석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병희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박배연 위원, 안인수 위원

강문식 위원장

2025년 8월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위원

여수시 인구 문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 여수 거주 실인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 특히, 여수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 상당한 인원의 등록지는 광주와 수도권,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에 어느 지역에 옮겨 가서 6개월 이상 살면 주소지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음. 그다음 필요하면 여수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 인구를 여수시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 인구유출에 대한 카운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여수시에서 생활을 영유하는 실거주 인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강문식 위원장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리더분들이 이슈화돼 있는 일들을 처리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또 의견을 도출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 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요즘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음.

박병희 위원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공업도시의 특징임. 직장주소의 분리 문제 주소지 2개 둘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과 같은 방안 다른 공업도시와의 연계해서 주장 및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여수MBC 전남도 공모 홍보 캠페인 송출 관련해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동의하는 7개 시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 여수MBC가 지역민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러한 전라남도 의대유치 공모에 대한 캠페인 송출이 지역의 여론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러우며 아쉬움.

천지연 위원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답답함.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장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자체가 소멸되고 있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 공공의료문제와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고 있음. 의대 유치도 중요하나, 지역 의료의 문제와 현실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 등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 2년이 지남. 10월 조사기간 종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행안위 법률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 여기에 대한 취재 부탁.

박성주 위원

지역 언론의 핵심인 인력의 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여수MBC 방송국 입구에 걸려있는 민주노총의 현수막 MBC 의견으로 비춰질까 염려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애숙 위원

성공적인 섬박람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 필요. 기후위기, 환경문제(가뭄, 홍수 등) 관련 교육 등 매우 중요함. 공익 광고 형태를 활용하여 환경문제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안인수 위원

인구유출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보도가 있어 감사함. 우수한 인력 유치 애로사항 관련 보도 이어진 것 좋았음.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기업 입장에서 여수 산단, 화학산업 업황이 좋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고 우려됨. 또한 지역 내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부족.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방송국이 협업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생각함.

박소정 위원

뉴스앤이슈 패널이 혼자인 경우에 진행자의 주어진 질문에 패널이 정답만 말하고 있음.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더 많은 내용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음. 여수MBC에서 제작하는 특집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좋은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업로드 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가 적음. 좋은 프로그램 알릴 수 있도록 구독자 확장 방안이 필요함.

보도에서 보면 다양한 주제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고 있음. 다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내가 정보력이 약하고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편승해서 귀를 기울여 버린다고 생각함. 의대 유치 문제에서도 김문수 의원이 의대 유치 위해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순천시에서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이 주장하는 거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서는 그러면 김문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심층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보건복지부에선 어떤 입장인가 그렇게 해서 언론의 기능으로 이거를 양쪽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줘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 김문수 의원의 말이 맞는지 순천시 말이 맞는지 이러면서 그냥 편가름으로 밖에 안 간다라고 생각함.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좀 중간에 개입되어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음.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갈등이 이슈된 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언론이 시민들에게 좀 객관적인 자료를 던져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현안들만 보도되는데 1달에 1번쯤은 미리 예측해서 나가는 보도가 필요함. 민생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물가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물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힘들어지고 있는가 이런식의 보도가 필요함. 그다음에 광양, 순천 등 관내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 분양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집값을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취재 부탁함.

그다음에 의대 유치 문제를 예로 들면 지금 전라남도하고, 일선 시군하고 의대 유치 문제만 갖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일반 사람들은 중앙정부와 도 광역단체인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 간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그래서 중앙정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전라남도 광역단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시군 지방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가도 좀 공부가 되게 해주는 역할에 대해 다뤄주길 바란다.

그리고 뉴스투데이 여자 아나운서 잘하고 있으나 말이 굉장히 빠름. 근데 빠르면서 입 모양하고 발음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음. 그리고 뉴스데스크 생활포커스 진행할 때 대본이 흔들리는데 이것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집중이 잘 안됨. 아나운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박경숙 위원

농업, 농촌문제 다루는 콘텐츠 보도가 부족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농촌재생,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음. 마을자원이 무엇이고 마을이 어떻게 나가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러한 농촌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길 바람.

강문식 위원장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음. 명절 예전 같지 않음. 과거 전통문화에 대해서 되새겨 줄 수 있는 방송이 있었음 좋겠음.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